

제1회 전북 예술·관광상 수상자 선정

예우 등 11건 시상식 19일 진행... 도지사 표창·공적 아카이브 전시 제공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제1회 전라북도 예술·관광상 수상자로 예우 등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수상자는 예우와 함께 디자인에보(기업, 아트페어 및 페스타 기획), 전주대시습놀이보존회(단체, 전통예술 보존·국악인재 발굴), 전주소년소녀합창단(단체, 청소년 공연예술 육성), 아크빌(단체, 로컬관광 콘텐츠 기획), 예우(단체, 배리어프리 공연), 삼재균(기획), 양진성(공연), 이기홍(미술), 이종근(문학), 이흥재(사진), 전호갑(공예) 등 11건이다. 예술·관광상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진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관광산업에 동력을 제고하고자 2023년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후보자 추천과 2차례의 공적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분야에서 활동 중인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전주 라한호텔 1층 온고홀에서 재단 신년인사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공적 아카이브 전시가 제공된다. 전시는 3월 중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제1회 전라북도 예술·관광상 수상자로 예우 등 11건을 선정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많은 예술인과 관광분야 종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재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구석구석에서 도민들이 모여 창의적인 활동을 함께 즐기며 축하하는 나눔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기획정책팀(063-230-741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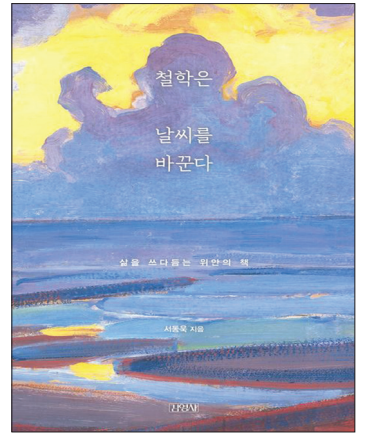


전주교 전주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2024년 전주교 전주교구 사제·부제 서품식이 열린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서품 받는 사제와 부제들이 전북 기도를 올리고 있다. 전북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가 되어 하느님을 경배하겠다는 다짐을 상징한다.

마음의 날씨 찾아주는 철학의 위로

서강대 철학과 서동욱 교수 신작 에세이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이 책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는 과부하와 무기력을 오가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날씨를 찾아주는 철학의 위로를 담았다. '생활의 사상' 이후 7년 만에 낸 서강대학교 철학과 서동욱 교수의 신작 에세이다. 철학, 문학, 미술부터 영화, 만화, 게임까지 온갖 영역이 풍성하게 교차되는 마흔 편의 글들이 익숙한 단어의 뒷면을 들추며 흐린 일상을 깨운다. "산책에는 삶의 중요한 진실이 있다. 산책에는 단조로움과 새로움이 결합해 있다. 달리 말하면 반복과 반복을 통해 얻는 새로움이 결합해 있다. 늘 똑같은 길로 들어서지만 그것은 늘 새로운 하루이다. 이것이 일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 반복이 새로움의 조건이라는 것은 산책의 귀중한 동반자인 우리 집 강아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매번의 산책이 세상에서의 첫날인 것처럼 구름은 너무 신나서 걸어간다. 산책이 그렇듯 반복이 새로움이 아니라면, 일상은 그저 행방불명 것이다." (180쪽)



남의 정답이 쓸모없는 시대 나의 질문을 던지는 법을 강조한다. "해답이란 그 해답을 얻어낸 질문과 뿔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활짝 핀 꽃송이를 꺾어 가지듯 해답만을 꼭 따낼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생각도 제대로 된 질문에서 나올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설파하고 공포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모두가 주목하는 '인공'이라는 단어 대신 '지능'에 초점을 맞춰 질문했기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바보'와 '천재'도 비슷한 단어로

묘사한다. '어떻게 창조하는가'의 관점에서는 둘 다 규칙을 뒤집는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AI는 문학 작품이든 미술품이든 만들어 낸다. 이는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고, 흠릴 수 있으며, '유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작품의 수준이 높냐 아니냐, 독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유혹이 예술의 영역에 그칠까? 일단 유혹의 기술을 배우면 그 적용 범위는 한없이 넓어진다. AI가 유혹의 문제라는 것은, AI가 카테일이나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까지 독자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최고의 레시피를 제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최고의 기준인지 우리는 결코 답하지 못한다. 관건은 AI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인간을 유혹할 것이고, 결국 적용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뉴시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서 6명 지역작가 전시 만난다

첫 전시 이동근 작가 '풍요+자연에 물들다' 3월 4일까지 진행

완주군이 올해 대표 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역작가 6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에서는 '지역작가 공모전'을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지역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도 지역작가 공모전의 일환으로 16명이 응모해 최종 6명이 선정됐다. 첫 번째 주자는 이동근 작가로 '풍요+자연에 물들다'를 주제로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총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과일과 바다 풍경을 주요 소재로 삼아 초현실적 극사실화로 표현해 본질과 현상 사이에서 화해와 진정한 소통을 말한다. 이동근 작가의 전시는 3월 4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이예녹(2회차), 유흥영(3회차), 강지음(4회차), 조화영(5회차), 김철규(6회차)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며, 연말까지 2개월씩 총 160여 점이 전시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작가 공모 전시회를 통해 주민, 작가, 관광객이 화합하고 상생하고자 한다"며 "삼례문화예술촌을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대표 아트스팟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은 2013년 개관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클래식 명화, 지역작가 공모전시, 공예품 공모 전시, 역사 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를 펼치고 있다. /완주=염재복기자

문화재청, 3년 연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문화재청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부처평가는 행정안전부 중앙평가단이 훈련 기획, 설계, 훈련 실시, 환류 계획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로 하는 평가다. 최종적으로 우수·보통·미흡 등 3

가지 평가등급 중 한 가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시설 산별 상황을 설정해 국가유산 보유 건수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훈련을 실시해 우수등급을 받았다.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2021년 김제 금산사, 2022년 공주 마곡사, 2023년 양산 통도사에서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됐다. 지난해에는 국보, 보물 등 국가유산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포, 방염천 등 재난관리 자원을 훈련에 적극 동원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